

도교육청 벌써 더위 먹었나 308억 '헛삭감'

세수 오만에 학교만 '예산가뭄' 시설·교육 사업비 선제 삭감 921억 감액... 실제 세입 감소 613억 초과 308억 집행 못해 예비비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세수 펑크 예고에 대응해 일선 학교의 시설 및 교육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했으나, 실제 세입 감소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밀 들면서 300억 원대의 초과 삭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삭감된 예산은 연말 집행이 불가능해 예비비 명목으로 묶이면서,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일선 학교만 불필요한 예산 가뭄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교육청에서 제공한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개요' 및 '2025년 정리추경 편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세입 감소 전망에 대응해 총 921억 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가 세입 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1,000억 원 감액을 예고하자,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시설사업비 340억 원과 교육사업비 250억 원 등 직접적인 교육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거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 결산 결과, 실제 세입 감소액은 당초 예고치에 크게 못 미치는 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등이 연말에 추가로 교부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실제 필요한 삭감액보다 308억 원의 세출을 초과로 감액해 학교 예산을 쥐어짠 셈이 됐다.

문제는 과도한 삭감 조치로 인해 남은 예산이 학교 현장으로 환원되지 못한 채 도교육청 금고에 묶였다는 점이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다시 각 부서와 학교에 배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 대규모 '불용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남은 자금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했다. 실제 2025회계연도 결산상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의 집행잔액은 약 430억 원으로, 2024년 약 22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전체 집행잔액 약 679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정확한 세수 통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북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겪은 경험

이 있어 추가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세출 절감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연말에 예상치 못한 증액 교부금 등이 들어오며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도 "집행이 불가능한 자금을 각 부서의 단 순 불용액으로 남기기보다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라며 "해당 잉여금은 온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전돼 2026년도 교육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농경기 인력난 총력 대응 2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도·시군·농협 협력체계 일원화 농경기 인력난 대응 '총력'

도·시군·농협 협력체계 일원화 인력 수급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중개센터 53곳 전국 최대 규모

전북도는 23일 농경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 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상황실 운영은 그간 분산돼 있던 농촌 인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농경기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허수종 새마을농협 조합장,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민선식 도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농경기 인력 수요·공급 현황 실시간 관리,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시 인력 일손돕기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지원

등 인력 수급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인 53개소(공공형 18·농촌형 35)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전년 대비 약 52% 늘어난 1만 2,752명을 확보해 연인원 135만 명 수준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개센터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연계한 집중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촌 인력 부족은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며 "상황실을 구심점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경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플라스틱 해법 찾는다" 국회 정책 대전환 컨퍼런스 개최

25일 국회서 환경오염 대응 논의 생산·사용·폐기 전주기 접근 국내외 전문가 참여 대안 모색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팬데믹: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의 장을 통해 플라스틱 환경오염의 현 주소를 냉철히 진단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목적으로 이같은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박의원외 김소희



박희승 의원

(비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김포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박정(파주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 정진욱(광주동구남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예결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또 UN NGO FLML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한국화학산업협회,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관한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도, 재정 집행 '속도전'...민생경제 회복 앞당긴다

1분기 1조 5천억 집행 목표 추진 시설비 중심 재정 투입 확대 방침 우수 집행 시군 인센티브 5억 지원

전북도가 경기 둔화 속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부문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20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제고 대책회의'를 열

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실적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부문의 소비·투자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재정이 지역경제에 신속히 순환되도록 하고,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 목표는 총 1조 5,058억 원으로 3월 중순까지 약 9,213억 원을 집행하며 신속

집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를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신속집행 지침 활용 등을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분기 집행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총 5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비 미교부와 행정

절차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과제"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1분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시 정책 공모 '열기'...300건 접수 마무리

도민·공무원 각각 150건 참여
행정개선·생활불편 해소 제안 다수
4-8월 단계별 심사 거쳐 정책화
전문가 멘토링 통해 실행력 보완

총 3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되며 마무리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AI를 활용한 분야별 대 전환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40일 간 진행됐다.
접수 결과 도민과 공무원 제안이 각각 150여 건씩 접수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제안 내용은 생활 속 불편 해소부터

행정서비스 개선, 업무 효율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접수된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4월에는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실무심사를 통해 본심사 대상 18건을 선정한다.
이어 6-7월에는 온라인 정책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제안을 보완하고, 8월 최종 본심사 및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철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도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발굴됐다"며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가

<1면에서 이어서>

플라스틱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현장과 전문가들은 생산, 사용, 폐기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술·제도적 대안 모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덕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 화학소비재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Robert Webber 전 CEO Waste Resource Technologies, Inc. & Harp Renewables,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김명규 FLML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 ▲김종상 (사)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원장, 전 KCL경영부부장, ▲라정임 제주ESG경영협회 이사장, ▲심도용 (사)한국화학산업협회 미래전략본부 실장, ▲원영길 선진이노텍 대표이사, 전 (사)시흥시기업인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플라스틱 팬데믹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산업을 함께 살리는 공생의 길을 찾고, 국내외의 기술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필요하다. 플라스틱 문제를 생애 전 주기적으로 접근하고, 구조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현대차 9조 투자' 전담 지원단 가동

부서 협력체계 구축 첫 회의 개최
5월내 범정부 연계 종합계획 수립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에서 도출된 과제 가운데 전북도가 담당하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투자부지 공급, 정주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현대차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투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간 점검회의를 운영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 및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1개월 이내 투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이내 범정부 대책과 연계한 '현대차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사진=전북도>

투자 실행 기반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현대차 투자지원단은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실행기구"라며 "기

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북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 중심의 유관부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이행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현대차 투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도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첫 협력회의로, 이차전자·수소·디지털 산업 등 관련 부처장들이 참석해 분야별 지원 방안과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윤준병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주유소 과도한 가격 인상 금지
정유사 소급 정산 관행 개선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바가지 인상 문제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

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에 소급하여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석유 판매업자 등은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윤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계속해서 앞장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김관영 지사 의혹 재점화 "후보 재검증해야"

소방내부문건·발언 추가 근거 제시
민주당 공관위 재검증 요구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8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경선 참여를 허용했다.
이 의원은 "그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라 조건부 판단 유보였다"며 "추가 증거가 나온 이상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추가 증거는 전북도 소방본부 내부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2024년 12월 4일 자정 도지사 주재 회의 직후 '긴급대응태세 확립', '청사 보안 강화' 등의 지시가 하달된 사실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불법 계엄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비상

계엄 상황'을 전제로 대응을 이어갔고, 이들 조치들이 도지사 지시사항에 근거했다는 것은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상 계엄 체제에 편승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당시 대응을 총괄한 도민안전실장의 공개 발언이다.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이 '군에서 만든 계엄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 '계엄법에 따라 지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도 수뇌부가 계엄 체제를 전제로 움직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도지사와 행정부 지사 주재 회의 직후 나온 점에서, 김 지사가 이를 몰랐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가 내란 방조를 했다는 증거 추가로 나왔으며 당 지도부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전북타임스>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능력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장수군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고향사랑e음
<http://ilovegohyang.go.kr>

기부자 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 지역특산물 등 제공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득을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별도의 범위)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정현주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

“전주 찾은 외국인 중 74% 숙박관광 즐겼다!”

‘25년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평균 체류 기간 2.69일로 급증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전체 관광객 중 숙박 관광 비중이 7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2%p나 상승한 것으로

전주시가 단순히 당일치기 코스가 아닌 ‘숙박하며 즐기는 여행지’로 자리매김 했음을 입증했다. 숙박 관광객이 늘면서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2.69일(전년 대비 0.99일 증가)로 조사됐으며, 외국인 1인당 총지출 금액도 1년 전(15만482원)보다 85% 급증한 27만 8659원을 기록했다.

여행 형태는 패키지보다 개별 여행(77.1%)이 주를 이뤘으며, 재방문율도 16.7%까지 상승하며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입소문과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이 전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 및 문화유적 체험(77.1%)’이었으며, 경기전(55.3%)과 남부시장(37.9%)이 여전한 인기를 보인 가운데 최근에는

전주전(21%)과 국립전주박물관(20.2%)의 방문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며 관광 동선이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주 관광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2점으로 매우 높았고, 특히 치안(4.77점)과 음식(4.54점)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 언어소통(4.11점)과 대중교통(4.22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전주시는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등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올해 총 41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주요 선정 기준인 2026년 기준 월 소득액은 △1인 가구 381만3363원 △2인 가구 586만6270원 △3인 가구 816만8429원 △4인 가구 880만2202원 등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개선이다.

△주택 출입문·출입로 경사로 설치 및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출입문 손잡이 교체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며,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 대비 태세 돌입

‘2026년 추진계획’ 전 부서 시달

전주시는 이달부터 ‘2026년 전주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시는 올해 △위험요소 데이터 기반 평가 환류 △유관기관 합동 현장 대응 강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의 ‘3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더욱 철동같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합동점검 지적 사항들을 데이터

베이스(DB)화해 다음 행사 기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신설했다. 또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1일 전자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근거로 제도화해 안전의 비뚤음을 메웠다. 기상 악화나 인과 과밀 시에는 즉각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훨씬 이전부터 유관부서 간

치열한 ‘몰밀 안전관리’를 가동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개최 3주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인과·소방·전기·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검토를 거쳐 보완을 요청하고, 개최 10일 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계획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축제와 행사 개막 전부터 다층적인 검토·보완이 이뤄지고, 촘촘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만큼 시민 등 방문객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오는 4월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연말 제야 축제에 이르기까지 연간 15건의 주요 축제를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5 전주페스타와 가막축제 등 총 14건의 크고 작은 행사 현장에 대해 선제적인 인·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역축제장 내 사망 사고 제로(0)를 기록했다. /정소민 기자

현창호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출마

완산구 효자1동삼천1·2·3동 전주시의원 후보 출마 공식 선언



6.3지방선거 완산구 효자1동·삼천1·2·3동 전주시의원 후보에 현창호(57)(사진) 예비후보

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창호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 활동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복지 및 상권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해왔다.

현 예비후보 지역활동 지역민 평가에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중점에 두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창호 예비후보 공식 출마 선언

은 지난 13일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54(2층)에서 진행됐다.

“우리동네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슬로건 아래 마련된 현창호 예비후보 개소식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모여들며 거마평로 54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현창호 예비후보는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시의원 역할”이라며 “책상이 아닌 골목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살기 좋은 우리동네 조성 △골목 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어르신·아동 복지 강화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현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어린이 안전 통학 환경 조성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주민 체험형 안전 정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환경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창호 예비후보는 현재 동막골 시래기마을 전주본점(완산구 성지산로 13)을 운영하며 지역민 나눔 봉사 등 생활 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새활용 산업 선도할 ‘다시봄’ 입주기업 모집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31일까지 센터 입주 2개 기업 모집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오는 31일까지 센터에 입주해 새활용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집단은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활용(업사이클링) 분야 기업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것이

로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새활용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새활용 관련 사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에게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 연계한 협력사업 지원과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우수 기업의 경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자우편(jucch21@naver.com)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전주시청 별관 확충 사업 현장 점검

청사 부족 문제 해결 행정 효율성 제고 확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23일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청 사 별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 점검과 부서 이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층 로비와 접견실, 업무 공간 등을 살피고, 임차 부서의 이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폈다. 전주시청 별관 확충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청 별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별관은 지하 주차장부터 업무 공간과 후생 복지공간, 강당 및 스키야드 등 갖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철 위원장은 “시청 별관 확충은 분산된 행정 기능을 하나로 갖춰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안) 3만6651호 열람·의견 청취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주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주시역 총 3만6651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

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465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 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거쳐 결정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으로, 개별주

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을 진행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풍남문광장 생활안전체험’ 전개

도민 생활안전 관심이 높아지며 사단법인 대한안전봉사자협회(이사장 강동일) 주관 ‘생활안전체험교육과 안전캠페인’이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 전주119 시민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토요일 전주 풍남문 야외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소



화기 사용 체험, 전기화재 예방 교육 등 7개 생활안전교육 체험존이 운영됐으며, 주말을 맞아 한옥마을과 풍남문 광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확산이 이뤄졌다. 전주완산 의용소방대연합회도 함께 참여해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실천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시간 동안 현장 인근에 119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지원에 나섰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추진

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국가기관시설 등 중요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 국가책임기관 시설,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복합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으로 구분되며 2026년 3월 현재 전주덕진소방서에는 전력을 못 통신용 지하구 등 총 19개소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덕진구 관내 국가책임기관시설 17개소 및 그 외 기타 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총 18개소를

점검·관리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단을 통해 ‘소방시설별’, ‘화재예방법’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피난계단 및 통로 내 장애물 적치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피난계획 수립 여부와 양방향 피난로 확보 여부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피난경로와 대피유도 방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공모 선정

호남권역 유일 로컬 창업 공간 12월 개소 경제 성장 동력 마련

전북도와 전북경제동성장진지원(원장 윤여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로컬 창업타운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전북도는 15억(국비

7.5억, 도비 7.5억)을 확보했으며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유지했다. 로컬창업 타운은 지역 로컬 기반 창의적인(예비)소상공인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거점 공간이다. 공간 구성은 당해연도 4월 초 착수하여 12월 개소할 예정이며 공유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회의실 등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북형 로컬창업타운'은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해 약 500㎡ 규모로 조성된다. 전북대학교 상권과 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핵심 입지로서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추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전반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특히 2028년 완공 예정인 전주 MICE 복합단지와의 인접해 향후 성장 기반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로컬창업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1단계 모두의 창업(로컬 창업), 2단계 로컬 크리에이터, 3단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로 단계별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도내 유일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창업부터 경영개선, 마케팅, 판로개척까지 단계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로컬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친환경·GAP인증 교육 성료

수도작 농가 대상 간담회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0일 친환경·일반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함께 친환경 농업 실천 및 GAP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내 수도작 농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주요 주의사항과 함께 농약 및 비료의 적정 사용 방법, 토양 관리 요령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GAP인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농가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재배와 GAP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블랙록과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 체결

실질적 협력과 상시 소통 지원... '전주사무소' 개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3월 23일 공단 본부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Inc.)과 전 자산군을 포괄하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맺은 전략적 제휴처럼 개별 자산군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 채권, 멀티에셋, 대체투자 등 전 자산군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한 사례이다. 이로써 국민연금과 블랙록의 협력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공식화됐다. 1988년에 설립된 블랙록은 주식, 채권, 멀티에셋, 사모 시장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세계 최대 종합 자산운용사로 2025년 말 기준 약 14조 달러(약 2경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또 전 세계 38개 이상의 글로벌 사무소에서 2만 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2007년부터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블랙록의 사장이자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카피토(Robert S. Kapito), 아태지역(APAC) 부회장 히로 시미즈(Hiro Shimizu)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교류 프레임워크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 △글로벌 거시경제, 시장 동향,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구조화된 지식교류 플랫폼, 투자 인프라 관련 관점 교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과 블랙록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전략 파트너십의 첫 발"이라며, "앞으로 전주가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와 혁신을 논의하



<사진=국민연금공단>

는 글로벌 관문(Global Gateway)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록 로버트 카피토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 공유 기반의 협업 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민연금의 장기적 목표 달성과 함께 참여하고, 금융 중심지로 성장해 가는 전주에서 기여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바로 전주시 만성동에서 블랙록의 전주 사무소 개소식도 이어졌다. 전주사무소는 두 기관 간 실질적 협력과 상시적인 소통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 교류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2월 전북 무역, 자동차 수출 전년 대비 2.3% ↑

농약·의약품·자동차·동 제품 수출 증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26년 2월 전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26년 2월 전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5억4993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한 4억10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흑자 규모가 전월 9278만 달러에서 당월 1억4891만 달러로 62% 대폭 확대됐다.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8.7% 증가한 673억951만달러, 전체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3366만 달러로 집계되어 153억7585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2월 전북의 5대 수출 품목은 △농약·의약품(\$9,765만, 72.6%) △자동차(\$3,992만, 5.5%) △정밀화학원료(\$3,913만, -6.8%) △동제품(\$3,552만, 35.8%) △합성수지(\$3,211만, -5.0%) 순이다. 특히 2월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3992만 달러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베트남(\$4683만, 45.9%), 브라질(\$3681만, 174.3%), 말레이시아(\$1209만, 228.5%)의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확대 흐름을 견인했다. 특히 베트남은 2월 전북의 자동차 수출국 1위로,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1568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전북의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뒷받침했다. 반면 브라질은 전년 동월에 839.3%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도 174.3%라는 세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며 주요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려 향후 수출 다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브라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1위 품목은 농의약품으로,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브라질에서는 연초 2모작 파종을 준비한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전북의 주요 수출품목인 동제품의 수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지역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적극 우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해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민·관 합동 지원단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연구 산업 육성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모델 설계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 확대에 직결되도록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 공문과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정읍시지부 '동학마라톤' 참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와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 동학마라톤대회에 단체로 참가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지역 대표 행사인 동학마라톤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임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은행 직원들은 5km와 10km 등 각 코스에 직접 참여해 시민

들과 함께 호흡하며 레이스를 펼쳤다.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동학마라톤 대회에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땀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순기 지부장은 "정읍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봄날을 만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호흡하고 더욱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페이퍼 '친환경·기술혁신 환경 경쟁력' 입증

녹색기업 9회 연속 인증 바이오매스·자원순환 효율성 제고

최근 산업계 환경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제지기업인 전주페이퍼가 환경부 산하 전북지방환경청, 자원 재활용 확대,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친환경 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환경 개선 성과를 축적해 온 기업만이 가능한 결과다. 전주페이퍼는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행 중심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폐지를 원료로 활용하는 재생 기반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하루 9만 톤 규모의 폐수 처리 시설과 자원순환 설비를 통해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자원순환 설비와 바이오가스 발전 시스템을 연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는 순환형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주페이퍼의 관계사인 전주원 파워는 총 2기의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를 운영하며, 약 48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통해 제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페이퍼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시간당 120톤 이상의 스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 설비(SCR, 집진시설, 자동측정 시스템 등)를 도입

해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을 관리하는 등 대기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이러한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친환경 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녹색기업 지정 이후 지속적인 환경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9년까지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녹색기업 지정 사업장은 전북 내에서 전주페이퍼를 포함 10개 사업장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90개 사업장이 지정되었다. 전주페이퍼는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한지박물관을 운영하며 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교육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재난 대응 훈련, 안전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환경 경쟁력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환경 투자와 기술 혁신을 지속 확대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1965년부터 전주시와 함께 성장해 온 향토 기업이자, 전북 지역내 대표 녹색기업으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페이퍼 '친환경 투자·기술 혁신' '환경 경쟁력' 입증

전북대 의대, 의평원 평가 첫 '불인증 유예'

대형 강의실·임상 교원 미확보 지적... 9~10월 재인증 시도 박차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사상 첫 '불인증 1년 유예' 통보를 받았다. 의대 증원과 대규모 휴학 사태로 인해 내년도 학생 수가 2배로 폭증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감당할 강의실과 교수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결과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2025년 2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전북대 의대의 인증 유형을 변경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증은 2027년 2월 28일까지만 유효하다. 전북대 의대가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평원은 구체적인 불인증 유예 사유로 '가정의학과 임상 교원 부족'과 '2024·2025학번 통합 수업에 대비한 대형 강의실 미확보'를 꼽았다. 과거 서남대 의대 폐교로 전국 최대

규모인 142명의 입학 정원을 흡수한 상태에서,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대규모 휴학 사태까지 겹치며 기존 인프라로는 교육 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는 즉각 재심사를 신청하고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나섰다. 우선 2026년까지 의과대학 1호관을 리모델링해 대형 강의실 3개를 확보하고, 4호관에 문 제중심학습(PBL)실 4곳을 추가 조성한다. 또한 전북대병원 본원과 군산 전북대병원 내에도 학생 전용 임상실습 교육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역시 지난 18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해부학 교실을 1.5배 확장하는 공사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타 의대 대비 높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대는 오는 7월 말 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9월에서 10월 사이 의평원의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재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타임스>

황호진 예비후보 '리더스 국제학교' 설립 공약

장세환전국회의원 지지호소 인위적인 단일화는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바닥 민심과 여론 동향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세환 선거대책위원장(전 국회의원)은 황 예비후보의 행정 경력을 부각했다. 황 예비후보는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공형으로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애겠다"며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계 글로벌 인턴십 운영, 영어 공용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정치 공학적이고

전북교육청 '전북에듀페이' 접수 시작... 최대 20만 원 지급

16만 3,000여 명 대상 내달 15일까지 집중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생 16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0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전북에듀페이' 집중 신청을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전북에듀페이 총예산은 238억 원이다. 먼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대상인 '입학지원금'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육청 누리집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고등학생 15만 원이며,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2학년 이상 재학생이 받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북에듀페이 앱이나 전용 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초등학교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15만~20만 원이 배정됐으며, 전북은행 에듀페이 카드(바우처)로 지급된다. 기존 보유자는 쓰던 카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도교육청과 전북은행은 집중 신청 기간 동안 학부모 편의를 위해 주말 에듀페이 콜센터를 운영한다. 바우처 카드 발급을 맡은 전북은행은 일부 영업점의 운영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고, 장수·임실 지역에 임시



<사진=전북교육청>

영업을 개설한다.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K리그 최초 '클럽 뮤지엄' 28일 정식 개관

구단 정체성 일상적 소용 성장·활약역사 등 전시

전북현대모터스FC가 오는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클럽 뮤지엄'을 정식 개관하며 팬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팬 익스피리언스 센터(Fan Experience Center)'가 마침내 완성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전북현대가 조성한 '팬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단순히 승패를 기록하는 공간을 넘어, 팬들이 구단의 정체성을 일상적으로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의 거점'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경기 당일에만 활성화되던 스타디움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가 없는 주말에도 언제든지 팬들이 방문해 전북현대

라는 클럽의 자부심을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팬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클럽 뮤지엄'과 '이벤트 홀', 지난해 먼저 선보인 '오피셜 스토어'를 통합한 공간이다. '이벤트 홀'은 각 시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 팝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그 첫번째로 지난해 '더블 우승'을 상징하는 K리그1과 코리아컵 트로피 등을 전시해 포토 공간으로 팬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클럽 뮤지엄은 유료로 운영되는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최초 상설 클럽 박물관으로, 전북현대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팬들이 구단의 발전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현대>

전시 공간은 구단의 시작과 성장 과정, 리그 우승과 아시아 무대 활약,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진 역사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개의 전시 챔터로 구성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북현대의 역사를 따라가며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정철 기자

학사모 '학산공원화캠페인 인문학강좌' 진행

학사모(학산을 사랑하는 사람모임)는 '학산공원화캠페인 인문학강좌'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장소는 학사모 회의실로 학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미래비전 교육을 학사모 회원과 주민, 전주시민들에게 알려 옛 것을 찾아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다. 역사적 고장 전주의 전통의 맥을 학사모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필요성을 신정일 향토사학자와 이준구 박사 등 강사들이 나서 후배들의 도움,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의 학산을 소개한다. 고연규 회장은 "학산과 평화동, 서학동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돼 보존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개발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학사모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했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로 4월에 감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이제 학사모 회원들이 나서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로컬 체험관광 사업체 '한자리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3일 제1층 관광기 업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2026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 소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으로 선정된 사업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추진 현황 공유 △후속 지원 사업 방향 안내 등이 진행됐다. 이어 후속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체험관광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 로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새로운 L5 대한민국 농협

1989 신도시

1995 농심천심

2025 농심천심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농업의 가치 국민과 같이

2026년도 농심천심의 길로 나아갑니다

농협

농협중앙회 전주시지부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전주원예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용진농협 소양농협 상관농협 구이농협 이서농협 삼례농협 봉동농협 고산농협 화산농협 운주농협

익산시 '마을세무사' 15명 위촉 시민 세금 고민 해결 돕는다

익산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 속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선다. 익산시는 '제6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 종료에 따라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15명을 위촉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14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의찬 익산시세무사회 회장은 "포함한 15명의 세무사는 2027년까지 2년간 읍·면·동별 담당 구역을 맡아 재능기부 형태로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이중 대상은 영세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으로, 상담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익산시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1차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율을 통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권의찬 익산시세무사회 회장은 "우리 동네 세무사로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따뜻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창업센터, 실전형 세일즈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기업 간 거래(B2B) 및 공공기관 대상 거래(B2G)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실전형 세일즈 아카데미' 참여자를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세일즈 현황 진단, △전문가 1:1 컨설팅, △모의 세일즈 연습 또는 동행영업의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고객 정보(DB), 영업 단계별 관리체계(파이프라인), 영업용 홍보자료(세일즈 킷) 등 기업별 영업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구체화한다. 이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신규고객 전화영업(콜드콜)·이메일 영업, 비즈니스 매너, 계약 성사 전략(클로징 기법)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검증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별 맞춤형 세일즈 매뉴얼을 제작·지원하며, 목표 시장 분석부터 고객 확보를 위한 이메일·전화 가이드까지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B2B·B2G 영업은 단일 계약으로도 큰 매출을 이어질 수 있으나 초기 창업기업은 제안 및 협상 경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실전형 세일즈 아카데미가 군산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아동 산림 레포츠 '나무놀이숲' 23일 접수 시작

정읍시가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산림 레포츠 체험을 제공하는 '나무놀이숲'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나무놀이숲은 아동의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조성된 맞춤형 산림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트리클라이밍과 버미다러, 질라인 등 나무와 로프를 활용한 산림 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밧줄 매듭법 교육을 병행해 아동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돕는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4월 17일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금요일은 초등학교 등 단체 방문객 위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개인·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숲속 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관광 콘텐츠 확충 나서 2(題)

'문화도시 삼삼오오' 참가팀 모집

익산시가 올해도 시민이 직접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익산시문화도시 지원센터, 희망연대와 함께 23일 '2026 문화도시 삼삼오오' 참가팀 모집을 시작했다.

문화도시 삼삼오오는 시민이 팀을 이뤄 익산 곳곳을 탐방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과 이야기, 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추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주제는 '익산의 숨은 매력을 추천해 주세요'이며, 추천 대상에 제한은 없다.

장소뿐만 아니라 공연·체험 프로그램, 로컬 브랜드 등 익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발굴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익산 시민과 익산에 거주하는 학생·직장인 등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3~5인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팀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익산시문화도시 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또는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가 모여 익산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색교도소 체험관' 28일 문 연다

익산시가 교도소세트장 일원에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오는 28일 교도소세트장 일원에 마련된 '이색교도소 체험관' 개관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관 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체험관은 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색교도소 체험관은 세계 각국의 독특한 교정시설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체험형 공간이다. 다양한 국가의 교도소 이야기와 특징을 설명 자료와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실제 교도소 환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감옥체

험관'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개관 행사 당일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연과 미술,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시간대별로 운영된다.

아울러 디지털 캐리커처 체험과 푸드트럭도 함께 마련돼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으로 증강현실 게임 '장난꾸러기 마름이를 찾아라'를 운영해 재미를 더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색교도소 체험관은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영 지원

내달 1일부터 임대료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5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쿨

산사량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범포·회계·세무 등 기타범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증빙서류 검토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매출액 확인 등 심사를 거치며, 처리에는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도입

아침 돌봄 공백 해소 보육 현장 부담 완화

정읍시가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아침돌봄수당 전국 시행에 발맞춰 마련됐다.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의 약 80%가 오전 9시 이전 조기 등원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의 시간대는 기존 보육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현장

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번 수당 신설을 통해 실제 보육이 이루어지는 이른 아침 시간대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육 현장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오전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이 1명 이상 있고 전담 교사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1일 기준 1만 4008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 보육 시간 전후에는 기존 반 편성을 유지하되 등원 아동이 적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반 운영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뒀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모두 마쳤으며,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시행에 맞춰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현장에서 제도가 차질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주민 환영 속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구역이 지난 16일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가운데, 사업구역 주민인 어청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며 한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 게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사업구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높은 지지와 수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청도 마을 곳곳에는 △"오래 기다린 어청도의 결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를 향한 어청도의 뜻이 올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힘차게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어촌계 방문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구역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며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의 기반이 됐다.

이번 지정은 군 관련 협의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정으로,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해군·공군·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 구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군 작전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어청도 이상철 어촌계장은 "어청도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해군과 공군하며 여러 불편도 묵묵히 감내해 온 만큼, 관련 군부대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져 주민들의 생계와 섬의 미래가 걸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시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추진

내달 3일까지 신청

원받는다.

군산시는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가게 환경개선 및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의 간판 인테리아·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돼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비로 총 300만원을 지

소상공인 점포는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25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4월 3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sh338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호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소상공인의 현안이 결합될 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스마트농업' 날개 단다

과학영농 통합관계 본격화

정읍시가 지난해 구축한 과학영농 통합관계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데이터 수집 범위를 추가 투입해 '데이터 기반 생산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낸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중심의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비와 시비 등 총 4억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통합관계 플랫폼과 관계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관내 밭기와 방울토마토, 토마토 등 시설채소 농가 13곳에 환경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고 온도와 습도, 배지 함수율, 배액 전기전도도(EC)

및 산성도(pH) 등의 생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왔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데이터 수집 범위를 한층 넓힌다. 기존 품목에 파프리카를 더한 시설채소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춘 세밀한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환경·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읍 지역 여건에 꼭 맞는 작물 생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청소년 맞춤형 교육비 지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접수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인재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2026년도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참여 학생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총 5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이 이어져 온라인 공개 모집 인원 280명이 조기 마감됐다.

온라인 공개 모집 인원 외 280명은 학교장(270명)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10명) 추천 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선결제 후 과정을 수강하고,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면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하반기 중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익산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도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린이 3천명에 '친환경 과일 간식' 공급

정읍시가 총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총 125개소 2998명의 아동에게 친환경 제철 과일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76개소 소수 원아 2300명과 초등학교 49개소를 이용하는 학생 698명이다. 제공되는 간식은 사과와 배, 감귤, 복숭아, 자두 등 계절별로 다양한 제철 과일로 구성된다. 특

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산 과일을 우선적으로 납품받고 있으며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및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을 획득한 고품질 과일만을 엄선해 공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제철 과일 간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생과 품질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상생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부안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당부

정화영 권한대행, 간부회의서 정부합동 평가 대응 철저 등 주문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23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중동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어렵다.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집행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선금·기성금 지급이나 일상경비 배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체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화영 권한대행

정화영 권한대행은 23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중동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어렵다.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집행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선금·기성금 지급이나 일상경비 배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체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합동 평가는 최근 지자체 간 경쟁 심화로 지표 1~2개 차이로 시군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모든 지표의 100% 달성을 목표로 전 부서를 노려야 한다”며 “부서장들은 합동평가 실적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부진한 지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상반기부터 실적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 ‘행복한 고창맘’ 참여자 모집

출산·양육 단계까지 지원

고창군이 임신·출산은 물론, 이 유식과 육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행복한 고창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임신부의 건강관리부터 모유수유, 정서 지원, 응급대처 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사업으로 4~11월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이 유식·유아식 교실을 새롭게 운영하며 출산 이후 양육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프로그램은 임신·출산 전 과정에 걸쳐 크게 건강·신체·정서·안전 분야로 구성된다. △임산부 건강교실=출산 준비,

신생아 돌보기, 이유식·유아식 조리 실습교육을 포함해 실제 양육에 필요한 내용 중심. △요가교실=순산과 산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예비 아빠의 참여 확대를 위해 토요일에 진행되는 부부요가 과정을 나눠 운영. △모유수유 클리닉=1:1 맞춤 상담을 통해 수유 자세와 유방관리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 또한 연 2회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신명환 유비크리에이티브 대표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실천

부안군은 지난 20일 유비크리에이티브와 공감디자인을 운영하는 신명환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명환 대표는 2025년 300만 원 기부에 이어 올해도 300만 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 고향기부를 실천해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기부는 단발성 참여를 넘어 지역과의 인연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민간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신명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국비 12억8천만원 확보 G-푸드 생태계 본격 구축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2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고창 특화 G-푸드(장어·복분자·고구마 등) 기반 식품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창의 대표 특화자원을 활용한 식품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G-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활력을 높여가기 위해 기획됐다. 고창군 사업은 ‘청년이 만드는 G-푸드, 활력 넘치는 고창 푸드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G-푸드 산업 생태계 고도화 △청년 인력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 △AI 기반 마케팅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떠나는 농촌’에서 기회가 있는 ‘활기찬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고창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고창 특화 G-푸드 기반 청년 창업과 농식품 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성 연구, 김치산업, 식품기업 성장 지원 등을 강화해 지역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빈틈없는 돌봄’ 기반 마련

통합돌봄 실무교육

김제시가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돌봄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방향과 업무 절차 이해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지역 내 돌봄자원 연계 방법 등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시스템 활용 방법과 주요 업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돼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통합돌봄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협력 기반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공무원 아이디어 교류로 농축산정책 개선 방안 모색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 분야 현안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중심의 연구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부서별 업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팀별 6~10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과제 설정과 구성 단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진행한다. 현안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자율 과제 발굴을 통해 농축산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모여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 현안 해결과 농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선운산 농협>

NH농협재단-선운산농협, 희망장학금 전달

다문화 가정 학업 지원

NH농협재단과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20일 선운산농협 본점에서 농촌지역사회 인재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차세대 리더 양성과 농업인 다문화 가정의 학업 지원을 위해 ‘농촌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농촌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을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기욱 조합장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이루고 지역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경찰서, 픽시자전거 및 PM 계도 홍보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두바퀴 차량(이륜차, PM, 픽시 자전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고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전단지 배부를 통해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고등학교 등·학교 시간대 집중 순찰과 함께 하고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알려주었고 학생들 또한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들에 픽시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태기준 고창경찰서장은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가 없는 만큼 사고위험성이 매우크니 안전수칙을 꼭 살피길 바라며 PM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없으니 청소년들은 안전한 일반자전거를 타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교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창업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4억2천만원 투입해 60개사 집중 육성

김제시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을 맞잡고, 김제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지원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희망로드 프로젝트’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한다.

시는 본격적인 ‘희망로드 프로젝트’추진을 위해 23일 시청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박선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희망로드 프로젝트’중 창업 부스터-업(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제의 청년들이 단순히 창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부와 성장을 이루는 희망의 여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 3개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2천만원을 투입해 △청년창업 점프-업(UP) 프로젝트, △세일즈-업(UP) 청년 프로젝트, △청춘 스페이스-업(UP)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창업 점프-업(UP) 프로젝트’



김제시가 2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희망로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는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 및 로컬 특화창업 아이템 발굴, 브랜딩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매출 확대를 돕는 프로젝트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넘어 더 큰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일즈-업(UP) 청년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김제 청년 창업가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충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경영에 안정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본격 가동

12개팀에 기술 습득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전북 고창군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성송면 관정리 190번지 일원)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도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청년

농업인,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는 총 4만 9775㎡ 부지에 조성됐으며, 단동형 2동, 연동형 3동, 스마트형 1동 등 총 6동(2만 800㎡ 규모)의 온실이 구축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작물 생육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팀별 1500㎡ 규모의 온실이 배정되며, 수박·멜론·딸기·토마토 등 작물 특성에 맞춘 재배 시스템을 적용해 청년농업인의 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앞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12개팀을 모집했으며, 고창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관의 거주자도 모집공고 마감 전까지 주소 이전을 완료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참여 폭을 넓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증가세...순유입 '뚜렷'

청년·중장년 고른 유입 구조 형성 기본소득·정착 지원 연계 '효과' 주거·정착 지원 병행 유입 확대

순창군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정부 지원 개선 등을 통해 인구 유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귀농귀촌 전입자는 총 210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출 인원은 72명에 그쳐 순유입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입 인원 1,42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귀농귀촌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60대가 크게 분포돼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유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



<사진=순창군>

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귀농귀촌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최대 2년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정착비,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소득 기반 지원 등의 정착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며 귀농귀촌인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임시거주지와 '귀농인의 집' 운영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체력 프로그램과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으로 귀농한 한 주민은 "기본소득 지원 덕분에 초기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정착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농업을 준비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이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광한루원, 체류형 '봄페스타'로 물든다

피크닉·플리마켓·버스킹 결합 한복 착용 시 세트 무료 제공

남원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봄맞이 관광프로그램 '2026 남원 맞춤 관광프로그램 - 광한루원 봄페스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광한루원 정문부터 완월정, 춘향관을 잇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 피크닉 프로그램 '광한루OnePick크닉',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광한루-원The플리마켓',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어우러지는 '광한루원버스킹_기생점'이 운영된다.

먼저 '광한루OnePick크닉'은 돛자리, 테이블, 담요 등으로 구성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 광한루원의 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감성 사진 촬영 공간, 야외 북 라운지 등 휴식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행사 기간 한복을 입고 방

문하는 관광객 또는 화인당에서 한복을 대여한 방문객에게는 피크닉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한루-원 The 플리마켓'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장터로, 핸드메이드 제품과 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과 지역 상인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광한루원 버스킹_기생점'은 4월 10일과 11일, 17일과 18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 재즈밴드 ZIP4(집사), 창작국악밴드 김성근밴드, 남원시립국악단이 참여해 국악과 재즈,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미션 관광시설과장은 "광한루원 봄페스타는 피크닉과 공연, 마켓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한복 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전주) 산림조합 모악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완주군(전주)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분부는 지난 21일 완주군 모악산 도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 예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산불예방 기념품 배부와 계도활동을 벌였다.

완주군(전주)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은 "산불예방은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이대성 본부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조합과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산불예방에 대한 도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지원 총력

물류비·공급망 불안 대응 모색 긴급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완주군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현장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관내 주요 수출기업 14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리스크 대응 및 수출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중동발 위기로 인한 물류비 상승, 원자재 공급망 불안, 수출 대금 결제 지연 등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위기를 파악하고 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완주군은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사진=완주군>

지난 20일 완주군 중동 수출기업 관내 기업 간담회를 위해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동 지역 물류 노선 차질에 따른 운송비 증가 △수출 보험 지원 확대 △하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군은 이날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애로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해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군정에 반영하고, 기타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숨은골' 쾌거...대한민국 주류대상 석권

'숨은골16' 3년 연속 대상 영예 탁주·약주 부문 대상 동시 수상

완주군 동상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공동체공간 수작(대표 이진영)의 전통주 '숨은골' 시리즈가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각각 탁주, 약주 부문별 대상을 휩쓸며 완주 발효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주류 대상은 국내외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대표 주류 품평회이다.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숨은골12(탁주)'와 '숨은골16(약주)'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정통성과 현대적 양조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깊은 풍미와 품격을 자랑한다. 특히 '숨은골16'은 이번 수상을 통해 3년 연속 대



<사진=완주군>

상을 차지하며 전통 발효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공동체공간 수작은 지역 특산품인 붕동 생강을 활용해 증류식 소주인 '나비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새로 마련한 체형장을 통해 다양한 막걸리 빛기와 증류식 소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진영 공동체공간 수작 대표는 "사라져가는 가양주 문화를 보급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공익직불금 접수...농가 소득 안정 뒷받침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비대면·방문 이원화 방식 운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식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중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경영체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지급 요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

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총 12,020ha 면적을 경작하는 12,936농가에 약 330억 원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 역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약 1만 2천ha, 1만 3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대상자 안내, 문자 알림, 현장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복직'...돌봄 공동체 시동

육아나눔터 오리엔테이션 개최

순창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 가족센터 1층 작은도서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오리엔테이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와 프로그램 소개, 이용자 요구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 간 돌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부모들이 서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또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장난감과 도서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군립도서관이나 읍도서관을 주로 이용해 왔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훨씬 좋은 공간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정현 센터장은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기후 변화 대응 농가 안전망 강화

태풍·폭염 등 농업재해예방 지원 지주대·온도저감 자재 등 접수

완주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농가의 시설 재배 안전망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시설의 피해를 줄이고 작물이 자라기 좋은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농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단동 하우스 보강 지주대 지원 사업은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에 취약한 하우스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하우스 내부에 보강 지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파손 등의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설 하우스 폭염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하우스 내부에 유동 팬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미스트 시설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이는 여름철 하우스 내부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막아 작물의 고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 시설물 온도 저감 자재 지원 사업은 고온기에 시설 하우스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한다. 하우스 외부에 도포하는 차광 도포제를 지원해 햇빛 유입을 줄이고 작물의 생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일까지이며, 관내 각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 받는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구조 보강과 폭염·고온 대응시설을 함께 지원해 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대비 위생업소 특별 점검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축제 종료일인 5월 6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제 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각종 위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공무원과 감시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장 내 청결 관리 △위생모·위생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숙박업소는 △업소 내 신고증 및 숙박 요금 게시 △객실내 위생용품 비치 △객실과 공용 공간 위생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공중위생법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과 '음식물 재사용 금지 서약서 작성'과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병행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장내 기생충 질환 지역 주민 무료 검사 진행

순창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증(간디스토마)을 포함한 12종의 장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은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장내 기생충 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특히 간흡충 감염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주민은 오는 4월 3일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용기(제변통)를 수령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조리기구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장기 방치할 경우 담도염, 담석증, 담관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반드시 익혀 섭취하고, 조리기구는 철저히 세척·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장내 기생충 무료 검사는 매년 1회 실시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신뢰받는 청렴 무주’ 실현 박차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본격화

무주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반부패 청렴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낡은 관행과 부패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 및 결의'를 통해 청렴한 공직 생활을 다짐하며 청렴 문화 확산 의지 다져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은 '신뢰받는 청렴 무주'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 발굴 및 선제 대응(계획수립), △소통을 통한 청렴 의식 내재화(이행), △실효성 있는 청렴 문화 조성(성과분석)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공예활동으로 장애인 손에 따뜻한 힘 더하다

임실군은 지난 18일 수요일에 임실군보건의원에서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예활동을 통한 감각자극 및 소근육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2026년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소근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CBR)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진행된 활동은 라탄공예 '원형트레이' 제작으로, 참여자들은 라탄을 한 올 한 올 엮고 고정하는 과정을 통해 손의 힘과 소근육 기능을 강화하고, 촉각 자극을 통해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을 받게 된다.

완성된 작품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AI 긴급방역대책회의 '확산 차단' 총력

장수군은 최근 군 관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인근 가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면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긴급방역대책회의는 이정우 장수부군수와 축산·환경·안전·보건 등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AI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방역 조치 상황을 공유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군은 최근에 발생한 AI가 산서면 일원에서 발생된 만큼 인근 가금류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 통제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방역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나섰다.

군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해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농가별 예방을 강화해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23일 긴급 간부회의 개최 “행정 공백 최소화” 강조 6월 3일까지 군수 권한대행

진안군은 전춘성 군수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23일부터 이경영 부군수(사진)가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 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 없는



군정 운영을 강조했다. 대행 기간 중 △민생 안전 △각종 안전·재난 대응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진안 방문의 해·전북자치도 양대체전 준비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담댐 수변구역 관련 규제 개선 후속 대응과 진안향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행정과 각종 대민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명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나서

농협네트웍스와 맞춘 체험 마을·관광자원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무주군이 농협네트웍스(농협여행, 대표 송병환)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23일 농협네트웍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양측은 무주 지역 농촌체험마을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판매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은 유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관광 수 요로 연결하고, 농촌체험 관광을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성사됐다.

농협네트웍스는 앞으로 전국 규모의 여행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무주군 농촌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쿠팡·카카오·농협여행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과 함께 오프라인 모객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무주군이 농협네트웍스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무주군>

또한 체험 상품 홍보물 제작과 운영에 나서며, 상품별 체험물 일부를 지원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을 농협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제대로 발산해 볼 것”이라며 “여행 전문 기업의 노하우로 새롭게 탄생한 농촌 체험·관광 상품과 홍보·마케팅 전략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1박2일 생태탐험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농촌 체험·관광 상품을 운용하는 한편, 6개 읍면 14개 체험 마을과 지역 내 다양한 명소를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체험·관광 상품 홍보와 판매 본격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농협네트웍스 측과 합동 현장 실사와 상품화 작업을 진행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자전거대회 개최

4월 11일 '2026 옥정호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대회' 열어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자전거 라이딩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11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연계해 개최한다.

옥정호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사이클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최상위급 자전거대회로, 옥정호와 섬진강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옥정호 벚꽃축제가 열리는 4월 11일 오전 8시, 임실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 운암면, 청운면 등 주요 구간을 경유한 뒤 다시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경기는 장거리코스인 '그란폰도'와 중거리코스인 '메디오폰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그란폰도 코스는 총 124km로, 임실종합경기장을 출발해 덕치 화문삼거리, 청운면 등 주요 구간을 경유한 뒤 다시 출발지

인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메디오폰도 코스는 총 72km로, 임실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성수 조치삼거리, 장수 산서, 오수 상신촌, 삼계 학정, 덕치 화문삼거리, 청운 모래재 등을 거쳐 출발지인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라이더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임실군은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 구간내 포트홀과 잔석제 등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임실경찰서 및 임실군 자전거연맹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구간마다 교통 유도 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체계 점검 회의

태풍·집중호우 선제 대응 강화

장수군은 2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 협업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재기간(5.15~10.15)을 앞두고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점검과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5월 14일까지를 사전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하천, 산사태 취약

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저수지, 매립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구호 및 자원봉사 지원체계, 주민 대피계획 등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신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통제 기준과 주민 대피 기준을 보다 체계화·정량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대피도

유미 지정과 주민 대피훈련 및 교육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사전 대비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통합돌봄 제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병원 동행부터 주거개선까지 8개 기관 참여

장수군은 23일 군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동행, 일상생활 돌봄 등 통합돌봄 제공기관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장수사랑재활주간보

호센터, 장수시니어클럽, 더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백세동안재가노인복지센터, 밀알노인복지센터, 장수지역자활센터, 미성건축, 그린의료기 8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대상자 발굴과 사후관리 협력,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품질관리 및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야별 전문기관 간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서비스 중박과 누락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상생협력 나서

푸드스트(주)와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23일 푸드스트(주)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성하 푸드스트(주) FSBU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양측은 △무주 농산물판로 확대뿐 아니라 △무주군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관광·축제 공동 홍보, △지역 인재 채용 및 청년 창업 지원,

△사회공헌 및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활동 등 동반성장에 목표를 둔 협력을 약속했다.

무주군과 푸드스트는 실무협약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급 품목과 물량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국 급식처 및 식당 대상 푸드스트(주) FSBU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푸드스트(주)는 전국의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덕유산 휴게소(상·하행)도 운영 중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N장미축제' 향토음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관 운영자 대상 1:1 집중 상담 실시

임실군이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6 임실N장미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먹거리 수준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섰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자 30명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운영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으로는 정정희 국제요리학원장이 참여하며, 임실읍을 비롯한 10개 읍·면 운영진들과 1:1 집중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공동·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청취 시작

임실군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146호와 개별주택 10,554호이다.

의견청취 제도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열람과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면 4월

30일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며,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주택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에서 열람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一事一言〉



기술 유출, 이제는 '국가 범죄'로 다스린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기술 유출, '기업 문제'에서 '국가 위협'으로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더 이상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비로소 법과 제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늦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해외 유출 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HBM 패키징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공판에서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기술 유출은 더 이상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협이다.

그동안 법과 제도는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기술 유출은 절도나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의 틀에서 다루졌고, 낮은 형량과 관대한 양형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기술 유출은 '고위험·고수익 범죄'로 변질됐고, 조직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법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걸려도 감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다.

'간첩죄' 적용, 징역 30년 바뀌는 처벌 패러다임

그러나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핵심 기술을 넘긴 경우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지고,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유출을 사실상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기술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는 제도도 시행된다. 사후 처벌 중심이었던 대응이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신고 포상제 도입... 사전 차단으로 전환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데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기술은 더 이상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국가의 산업 기반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기술을 지키는 일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한다. 더 많은 보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과거 일부 협력 행위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공동체에 상처를 남겼듯, 오늘날의 기술 유출 역시 그 본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물론 죄는 개인의 것이고 책임

도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잠식하는 행위다.

이제 관대한 처벌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기술 유출은 산업 안보 침해로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법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다.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기술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기술을 넘기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다.

사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 미래 10년의 승부수

전북자치도가 향후 10년 도정의 청사진을 담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총 사업비 109조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전북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과 공간, 그리고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전주·익산·완주를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권, 새만금을 축으로 한 첨단산업 권역, 동부권 산림·치유 관광벨트 등 권역별 특화 전략은 전북의 고질적 과제였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군별 산업 기반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역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점은 그간 전북특별법 특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정책 성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특구를 통한 취업 연계,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 수산업 생산성 개선, 감염병 조기검진과 생활안전 강화 등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도민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다. 이러한 성과는 이번 종합계획이 단지 선언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충분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청사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실행력

이다. 109조라는 막대한 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원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분산될 경우 계획 전체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산업 생태계의 실질적 구축이다. 농생명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단순한 시설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 판로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청년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는 곧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중요한 해법이기도 하다.

셋째는 도민 체감 성과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도 도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성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주거와 의료, 안전 등 생활 전반에서의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생명경제도시'라는 이름이 현실이 된다. 정책의 성과를 수치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로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전북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은 단순한 지역전략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이정표다. 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치밀한 실행, 그리고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뒷받침될 때 이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전북을 다시 도약시키는 실질적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보물 제608호)

- 분류 - 유적건조물, 불전
- 지정일 - 1977년 8월 22일
- 시대 - 백제시대
- 소재지-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53, 위봉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개안(開眼) / 박목월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피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至福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라.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빛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시인 약력 : 1915년 경남 고성 출생. 대구 계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59년 한양대 문리대 학장을 역임했다. 1933년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청록파를 결성하고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청록집에 실린 그의 시로는 임, 운사월, 청노루, 나그네, 하관(下棺), 가정 등이 있다. 군가인 '전우'를 작사했다.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전략입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JP 유 테크 E-mail_jhchoi3075@daum.net Tel_063.226.5888
QP 대흥정판사 E-mail_hi056@hanmail.net Tel_063.254.0056~7
AP 아트엔포트 E-mail_ap0987@daum.net Tel_063.251.0987

대흥정판사

'한국의 샤모니', 국제산악관광도시 장수 꿈꾸다

해발 1,000m를 넘는 장안산과 팔공산을 비롯 해 전체 면적의 75%가 산지로 이루어진 전북 장수군은 최근 풍부한 산림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특색 있는 매력으로 가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꼽히며 장수군의 산악관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해발 400~500m 고원이 이어지는 산줄기와 계곡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무대다. 최근 트레일러닝·캠핑·MTB 등 다양한 아웃도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장수군은 '한국의 샤모니' 국제산악관광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장수(長水)라는 지명은 물이 길고 산이 높다는 수장산고(水長山高)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왔지만, '長'이 으뜸이라는 뜻을 가져 "물의 으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개발에서 비껴난 덕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켜온 장수군은 청정 환경을 강점으로 삼아 '으뜸' 장수의 의미를 되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JANGSU TRAIL RACE

▲ 국내 최초 트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의 탄생, 장수트레일레이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불과 몇 년 만에 국내 대표 산악러닝 대회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장수트레일레이스는 국내 최장거리 100마일(170.8km) 코스가 정식으로 운영되며 국내 트레일러닝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트레일러닝에서 100마일은 마라톤의 폴코스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거리로 높은 난이도 때문에 운영과 안전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대회가 쉽게 열리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100마일에는 총 112명이 출전해 단 43명만이 완주에 성공했을 만큼 혹독한 여정이었다. 이런 현실을 돌아보면 장수에서의 100마일 신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은 도전적 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대회 기간이면 평소 고요하던 읍내와 마을마다 응원과 환대로 가득 찬다. 주민들은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고, 선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보내며 힘을 북돋운다. 지역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장수 트레일레이스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지역의 환대와 자연환경, 그리고 코스의 완성도를 바탕으로 2022년 약

장수트레일레이스에서 캠핑·MTB, 장수가 설계하는 국제산악레저 지평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 활력 끌어올려 으뜸 '長水' 의미 되찾을 것

150명으로 시작했던 대회는 2023년 800여 명, 2024년에는 3,000여 명, 2025년에는 5,000여 명이 장수를 찾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회로 떠오르고 있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축적된 경험과 인소문이 더해지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산악러닝 축제로 자리 잡았고, 장수의 산길은 해마다 더 많은 러너가 찾는 무대로 성장해가고 있다.

▲ '블랙야크'와 함께한 'K-샤모니 챌린지', 장수의 산악자원을 하나로 묶다

장수군의 산악자원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함께 운영 중인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는 장수군 전역의 14개 명산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내며 장수군의 산악지형 전체를 하나의 아웃도어 스테이지로 재해석했다.

참가자들은 블랙야크알파인클럽(BAC) 앱을 통해 덕유산 서봉, 봉화산, 장안산, 팔공산, 사두봉 등 핵심 봉우리를 인증하며 장수의 산악지형을 직접 체험했다. 챌린지를 완주하면 블랙야크는 BAC코인을, 장수군은 기념품을 제공하며 '체험→보상→재방문'의 구조를 완성했다.

장수군은 이 챌린지를 기반으로 트레일런 챌린

지 등 다양한 산악레저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챌린지가 아닌, 장수군 전체가 하나의 사계절 산악놀이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산악 브랜드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산업·관광·청년정착까지 연결하는 모범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 캠핑·트래킹·투어가 결합된 체류형 콘텐츠, '캠핑페스티벌'의 성장

장수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펼쳐진 장수 산악레저 '캠핑 페스티벌'은 장수의 산악관광 모델이 캠핑·트래킹·관광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일 동안 가족 단위 400여 명이 참여한 이 페스티벌은 트래킹, 숲속 공연, 장수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체류형 산악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개인 장비 캠핑뿐 아니라 장비 대여형 캠핑존까지 선택할 수 있어 초보 캠퍼도 자연스럽게 장수의 숲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장 호응이 높았던 건 가을 단풍을 따라 걷는 가족형 트래킹 코스였다. 산림체험원-데크로드-방화폭포로 이어지는 약 2시간 코스는 난이도가 부담스럽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기 좋았

고, 스탬프 인증 미션이 재미를 더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경제와의 연계 구조다. 순환 셔틀을 이용해 누리파크·논개사당·장수 5일장을 잇는 '장수 도장깨기 투어'가 운영되며 장수의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다.

▲ 60km 숲길을 달리는 MTB대회, 장수의 산악지형을 그대로 품다

장수군의 지형은 MTB 라이딩에도 최적이다. 승마로드의 메타세쿼이아길과 장안산 임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약 60km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완성도를 자랑한다.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제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 MTB대회'에는 600여 명이 참여하며 '장수 MTB는 믿고 간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 코스는 임도·숲길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초보 라이더와 베테랑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매력을 갖췄다. 기념품·완주메달·경품 운영도 호응을 높였다.

장수군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일환으로 2026년 10월까지 24억 원 규모의 'MTB 수준별 로드·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산악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난이도별 9개 코스와 웰빙광장, 안전헬스 등 체계적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장수는 'MTB 특화지구'라는 새로운 레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인터뷰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 왜 '국제산악관광도시'인가?"



장수군의 산악관광은 그저 많은 행사가 열린다는 차원이 아니다. 장수의 산줄기와 물길, 계곡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의 리듬을 그대로 품고 있다. 장수군이 지향하는 국제산악관광도시는 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는 시도다.

장수의 산악레저 콘텐츠는 각각 서로 다른 종목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구조를 공유한다. 트레일러너는 능선을 따라 장수의 숲을 가로지르고, MTB 라이더는 같은 산줄기를 다른 각도로 체험한다. 캠핑들은 숲속의 밤을 머물며 산의 리듬을 더 느리게 경험한다. 이 다양한 활동들이 서로 겹치고, 이어지고, 확장되면서 장수군의 자연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대한 아웃도어 무대가 된다.

중요한 건 장수군이 이 모든 흐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산업·관광·경주와 연결된 생태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트레일빌리지, 민관협력, 장수형 산악 상품 개발, 지역경제 연계 모델은 장수군이 지속가능한 산악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수군이 꿈꾸는 국제산악관광도시는 거대한 개발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과 주민의 환대, 청년의 참여, 민간 브랜드의 힘,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서로 얽혀 하나의 장수형 산악 생활권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장수의 산을 함께 숨쉬는 생활 인구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축이 바로 장수군의 산과 숲이다.

그래서 장수군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샤모니' 국제산악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장수의 자연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자연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만 남았다. 장수의 산길에서 그 미래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교통통제 4월 5일(일) 07:00~13:00

구간	통제시간	해제시간	비고
1 사정삼거리 → 나운사거리	07:00 ~ 10:00		양방향 전면통제
2 나운사거리 → 내항사거리	07:00 ~ 09:30		진행방향 통제
3 내항사거리 → 금강하구둑사거리	07:00 ~ 10:00		진행방향 통제
4 금강하구둑사거리 → 원나포보전소	07:00 ~ 12:30		양방향 전면통제
5 금강하구둑 → 최호장군교차로(전용도로)	08:00 ~ 13:00		진행방향 통제
6 최호장군교차로 → 월명체육관	08:00 ~ 13:00		진행방향 통제
7 쌍봉교차로(옥산) → 제일고등학교	08:30 ~ 13:00		양방향 전면통제
8 옥산삼거리 → 소방서사거리(운동장 앞)	06:00 ~ 14:00		전면통제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로 4월 5일(일)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차량 운행 시 통제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셔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군산새만금마라톤 사무국 070-8806-1007

Map details include: 군산전입시동맥대로 차량 우회(08:00-10:00) 10시 이후 북대을 방면 통행가능, 금강하구둑사거리, 내항사거리, 나운사거리, 쌍봉교차로, 옥산삼거리, 소방서사거리, 원나포보전소, 최호장군교차로, 월명체육관, 제일고등학교, 쌍봉교차로(옥산), 옥산삼거리, 소방서사거리(운동장 앞), 대야에서 시내전입 차량 우회(08:00-10:00) 통행가능, 29번 국도(전주) → 시청방면 차량통행 가능, 29번 국도(전주) → 시청방면 차량통행 가능, 대야에서 시내전입 차량 우회(08:00-10:00) 통행가능.